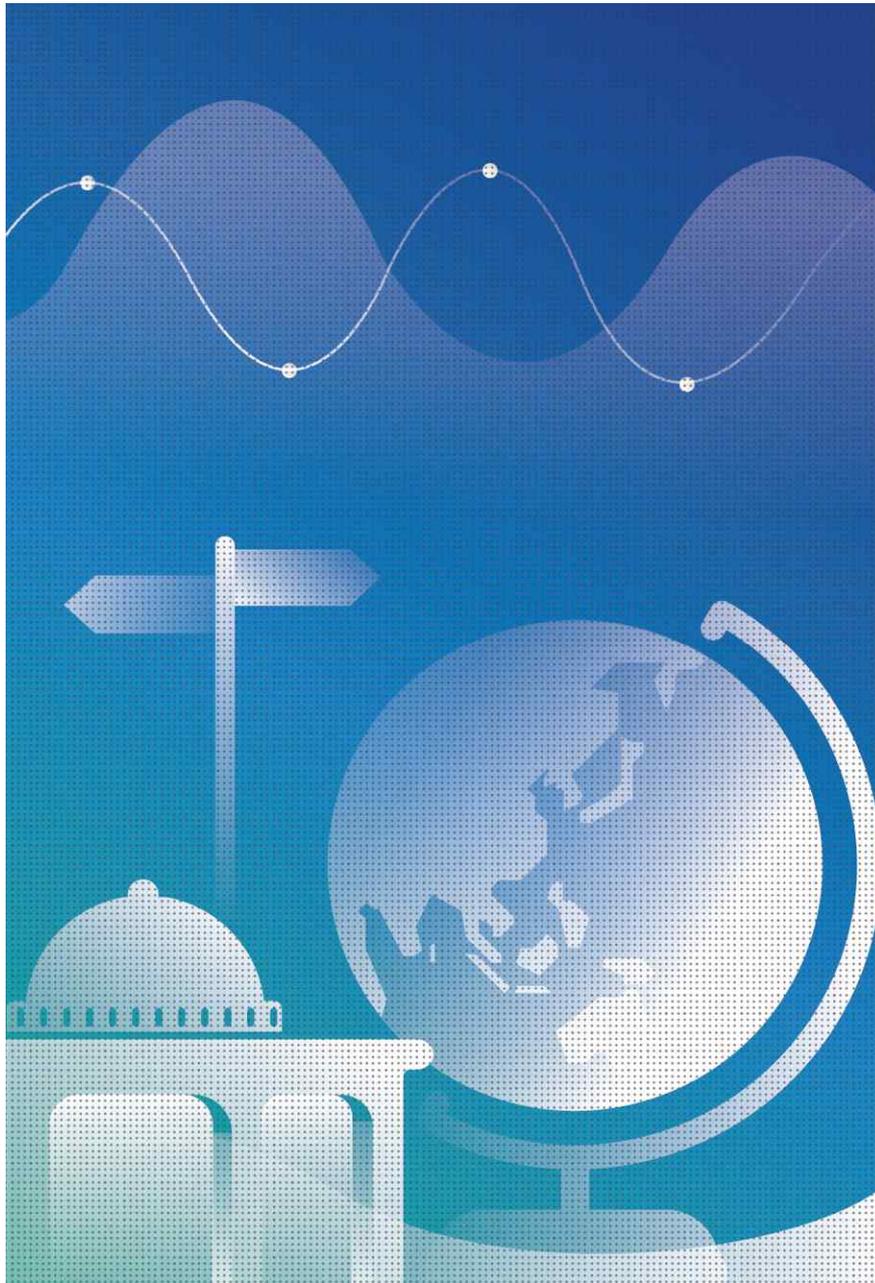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2-지역이슈-03(2022.02)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망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CONTENTS

- I.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전개 및 향후 전망
- II.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적 대립
- III.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작성

선임연구원 조영관 (6252-3603)
ykj@koreaexim.go.kr

※본 보고서의 내용은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 견해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K 한국수출입은행 | 해외경제연구소

<요 약>

I.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전개 및 향후 전망

- **배경** :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EU 및 NATO 가입 추진을 명문화하고 적극 추진해옴. 러시아는 이러한 상황이 서방이 NATO의 확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1990년대 초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자국 안보를 크게 침해한다고 평가하고 이를 우려하고 있음.
- **전개** : 러시아는 2020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의 국경지대에 10만 명의 군대와 무기를 배치하고 흑해 해상과 육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음.
- 서방은 이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며, 동유럽 주둔 NATO군의 규모를 늘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며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음.
- 2022년 2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군대 파병을 명령하여 긴장상황이 고조되고 있음.
- **전망**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군사출동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 및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군사충돌 가능성 증대
- 미국-러시아 정상회담, 러시아-우크라이나 간의 협상, 노르망디 4자회담을 통한 해결 가능성 존재
- 서방과 러시아의 군사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 가능성과 돈바스 지역에서 국지전이 지속되어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 존재

II.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적 대립 :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으로 경제적 대결 첨예화

- **서방의 제재 시행** : 미국은 2022년 2월 22일 동부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 추가 제재 시행을 예고함. 영국은 전시 상황에 적용될 보다 강화된 대러 제재법을 도입했으며, EU도 러시아에 대해 기존의 제재보다 강화된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 시행을 논의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응** : 유럽 소비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는 세계 1위 가스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축소로 대응하고 있음. 이외에 곡물과 광물 자원의 수출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함.
-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 제재 및 기술 제품 교역 제한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며, 수입대체화 산업정책 지속

III.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 **곡물, 에너지, 광물의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의 급변으로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이 예상됨.
-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증가한 원유, 천연가스, 석탄, 석유제품, 광물, 희유금속 등의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입 다변화를 통한 공급 안정 대책이 필요함**.
-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비하여 **현지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 대책이 필요함**.



I.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과 전개 및 향후 전망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의 배경

-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어 왔음.
- 우크라이나는 2019년 2월 헌법 개정을 통해 EU 및 NATO 가입 추진을 명문화하였으며, 2019년 7월 젤렌스키 대통령 집권 후 EU 및 NATO 가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음.¹⁾
- 우크라이나는 2020년 6월 NATO의 '확대된 기회의 파트너'(EOP, Enhanced Opportunities Partner)가 되었으며 이후 점진적으로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1997년부터 매년 흑해에서 미국과 해상 군사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 7월에는 NATO 32개 다국적 군대와 해상연합훈련을 실시하는 등 NATO와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있음.

EU의 동진정책과 NATO의 확대정책

- EU의 동진(東進)정책
 - 2009년 5월 EU가 구소련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동방 동반자 관계 프로그램(EPP, Eastern Partnership Program)에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의 6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EPP가 동 국가들에 대한 EU의 영향력 확대에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우려
- NATO의 확대정책
 - 1999년 동유럽 주요 3개국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의 NATO 가입을 시작으로 2004년 불가리아, 발트 3국,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입했으며, 2009년 알바니아와 크로아티아, 2017년 몬테네그로, 2019년 북마케도니아가 가입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 러시아는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를 지정학적으로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여,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러시아는 서방의 NATO 확장이 1990년 10월 독일 통일 당시의 "NATO가 동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경을 접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이 자국 안보를 크게 침해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우려하고 있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친러시아 국가로 복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가 최소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완충지대로 작용하는 중립적인 지역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음.

1) 우크라이나는 2014년 이른바 '오렌지 혁명'으로 불리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친러시아 성향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친서방 세력이 지속적으로 집권하고 있음.



러시아와 서방 간의 군사적 대립과 협상 진행

-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지역에 대규모 군대를 배치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우크라이나를 압박하고 있음.
- 2021년 11월 이후 10만 여명의 러시아 군대와 전차부대가 우크라이나와의 북부, 동부, 남부 접경지역에 배치되었으며, 크림 반도의 흑해 연안 지역에도 병력과 장비가 추가로 배치됨. 2020년 2월 중순 이후 국경 지역 러시아군은 16만~19만 여명으로 증대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의 북해 함대 및 발트 함대 소속 상륙함들이 흑해 지역으로 일제히 이동하고 해상 군사훈련이 실시됨.
-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에 전략폭격기와 전투기가 동원되고 러시아군 3만 명이 참여하는 합동 군사훈련(2월 10~19일)이 실시되었으며, 2월 19일에는 탄도미사일 등 핵전력을 이용한 훈련이 실시됨.
- 서방은 동유럽에 신속대응군 증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 미국은 1월 말 유사시 신속대응군 지원을 위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파병 대기명령을 내렸으며, 이 병력과 별개로 2월 초에는 미군 병력 3,000명의 동유럽 추가 배치를 승인하였음. 또한 독일에 주둔 중이던 미군 1,000명을 우크라이나 인근의 루마니아로 전환 배치하였음.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벨라루스 합동 군사훈련 기간 동안 자국 내의 9개 지역에서의 군사훈련 시행으로 대응하고 있음.
- 러시아와 미국, 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간에 대립 상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현재까지 성과는 없는 상황임.
- 러시아는 2021년 12월 15일 미국에 안전보장안을 전달한 데 이어 2022년 들어 미국(1월 10일), NATO(1월 12일), OSCE(1월 13일)와의 회담을 통해 협상을 추진하였음.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의사가 없음을 표명하는 동시에 NATO의 확장 중지,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절차 중단 선언 등을 요구하였으며, NATO 확대 중단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반대에 대한 안전보장안 서명을 요구함.
- 이에 대해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할 국가 주권의 문제라고 밝히며 러시아의 요구를 거절함.
- 이처럼 상호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과 NATO는 1월 말 러시아의 안전보장안을 거부하는 회신을 보내어 일련의 협상은 성과를 얻지 못함.
- 러시아는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도 추진하고 있으나 역시 성과는 없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 간에 두 차례(1월 26일과 2월 10일) 회동이 개최되어 상호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러시아와 다른 3개국 간의 입장 차이가 커서 성과 없이 끝났음.
- 이후 진행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및 정상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화 통화, 솔츠 독일 총리의 러시아 방문 및 정상회담 등도 긴장 완화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 다만, 2월 15일 솔츠 총리와의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음.



[표 1] NATO 확장 문제에 대한 러시아와 서방의 입장

구 분	주요 입장
러시아의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및 조지아 등에 대한 NATO 확장 중단 선언 - 러시아 인근 중-동부 유럽 NATO 회원국으로부터 공격무기 철수 - 구소련 지역에 NATO 무기 지원 및 군사기지 설치 제한 -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 모든 외국 무기 철수, 군사고문 및 훈련 교관 철수
서방의 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국은 자국의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결정 사항 -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배치된 러시아 군대 철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대규모 대러 제재 추진

향후 상황 전개에 대한 전망

-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군사충돌 가능성 고조: 2022년 2월 21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을 승인하고, 이 지역으로 군대 파병을 명령하여 긴장상황 고조.
- 2월 21일 이후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증대하였으며, 서방의 대우크라이나 무기지원 등 군사적 지원 확대, 대러 제재 시행이 전망됨.
- 대치 상황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대치로 인한 긴장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비전통적 방식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 서방과 러시아 간에 현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직접적인 전투 대신 우크라이나의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러시아의 해킹 등 사이버 전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긴장 상황의 지속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NATO 불가입 선언,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완화 등을 관철하고자 할 수 있음.
- 외교적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분쟁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의 동시 해결
- 2015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정상들이 합의한 민스크 협정-2의 이행을 통한 돈바스 분쟁 지역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합의를 통해서도 분쟁 사태가 진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월 19일 독일에서 개최된 뮌헨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회동을 제안하였음.
- 우크라이나 정부가 NATO 가입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월 17일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NATO 가입 문제를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음.
-



2015년 합의된 민스크 협정 2의 내용

-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
- 전투 지역에서 중화기 철수와 50km 안전지대 설정
- OSCE를 통한 휴전 및 무기 철수 감시
- 지방선거 실시를 위한 협의 즉각 개시
- 돈바스 지역 분쟁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 실시
- 포로 및 억류자 석방
- 인도적 구호물품 공급 보장
- 분쟁 지역의 사회·경제적 링크 복원
- 2015년 말까지 지방선거 실시와 우크라이나의 러·우 국경 통제 확립
- 돈바스 지역으로부터 모든 외국군 및 무기 철수
- 2015년 말까지 분리 추진 돈바스 지역에 특별 지위 부여 헌법 개정
- OSCE의 기준에 부합되는 지방선거 실시
- 민스크 협정 2 이행 실무그룹 구성

- 핀란드식 해결 방안을 통한 우크라이나의 NATO 미가입에 대한 서방의 약속: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8년 핀란드가 소련과 우호협력 상호 원조조약을 맺어 중립국이 되고 NATO에는 가입하지 않은 모델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음.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다른 서방 국가들은 이 방안에 반대를 표명함.
- 2022년 2월 24일에 예정된 미·러 외교장관 회담과 뒤이어 추진되고 있는 미·러 정상회담 개최시에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이 있으나, 2월 21일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동부분리주의 공화국들의 독립 승인과 군대 파병 결정으로 회담 개최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및 나토군의 전면적 충돌 가능성
-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 등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가능할 수 있음. 이 경우 서방과 러시아의 전면적인 무력 충돌이 발생하여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며, 전 세계의 군사, 안보,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됨.



II. 서방과 러시아의 경제적 대립

1.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국제 공급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제재 가능성

-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중국 화웨이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이나 제3국에서 생산된 미국산 부품 및 장비와 기술이 포함된 제품의 러시아로의 수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이 경우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품과 부품의 러시아에 대한 공급이 제한되며, 이러한 제품이 포함된 기술 제품의 러시아 내에서의 생산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SWIFT에서 러시아를 배제하는 제재 가능성

-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인 SWIFT에 대한 러시아 금융기관의 접근 제한 조치 시행 가능성이 있으나, 최근 미 백악관 관계자는 이러한 제재가 초기에 시행되는 제재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²⁾
- 유럽 의회는 2021년 4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SWIFT에서 러시아를 차단하는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음.
- 다만 이는 러시아의 주요 교역 대상국인 EU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또한 제한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중국 등이 새로운 자체 금융결제망 구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서방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 미국 정부는 2022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동부분리주의 공화국에 대한 미국인의 새로운 투자와 무역·금융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였으며, 추가 제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함.
-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 기존의 제재보다 범위를 확대한 강력한 금융제재 및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으며, 2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공화국 독립 승인과 군대 파병으로 추가 제재를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
- EU 정상들은 2월 17일의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제재 시행을 논의하였으며, 비상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영국 의회는 2022년 2월 10일 강력한 수준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 이 법은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해치거나 영토와 주권, 독립을 위협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의 법에 비해 제재 대상을 확대하였음. 이 법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 및 정부 산하 기관과 러시아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전략적으로 중요한 화학, 건설, 국방, 전자, 에너지, 금융 서비스, 운송 및 디지털 기술 등 분야에 대해 제재가 시행될 수 있음.

2) www.whitehouse.gov (조회일자: 2022.2.18.)



- 아울러 이 법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직접 관련된 기업이 아니더라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됨.³⁾
- 관련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과 함께 전 세계 금융시장의 환율, 주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의 대응

금융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는 SWIFT에 대한 자국의 접근이 제한될 경우에 대비하여, 2014년 중앙은행 특별법으로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인 SPFS(금융결제 국제전달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2022년 초 기준 SPFS를 통한 거래 건수는 러시아 내 결제건수의 20%에 그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국 금융기관만 이 거래를 인정하는 문제가 있음.⁴⁾
-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SPFS가 중국의 대외은행 간 결제 시스템인 CIPS⁵⁾와 연결되어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 금융당국 간 협의체인 금융안정위원회(FSB)의 클라스 크노트 의장은 러시아의 SWIFT 차단이 국제 대금결제 흐름에 심각한 교란을 초래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대체 국제결제시스템 개발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음.⁶⁾

서방의 기술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는 향후 자국에 대한 서방의 기술 관련 제재가 시행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 중국 기술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함으로써 제재의 영향을 감소시키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와 중국 간에 AI, 블록체인 등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협력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양국은 2020~21년을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의 해'로 지정하고 2030년까지 '달 연구기지' 공동 건설, 2024년까지 소행성 공동 탐사 등을 비롯하여 우주 분야의 협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18년 이후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화웨이는 러시아에 연구센터를 설립 및 확장하며 러시아 기업들과 연구 협력을 추진하는 동시에 러시아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음.

서방의 공급망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는 2014년 이후 교역이 확대되며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서방의 공급

3) www.gov.uk (조회일자: 2022.2.10.)

4)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서방의 러시아 SWIFT 제재 움직임 동향 보고」, (2022.2.3); 「러시아 독자 지급결제 시스템(SPFS) 현황」 (2022.2.7.) 참고.

5) 중국 대외은행 간 결제 시스템(CIPS, Chinese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s)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국제화를 목적으로 2015년 10월 출범시킨 독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임. 운영 조직은 CIPS Corp(China International Payment Service Corporation)으로 중국 인민은행의 감독을 받고 있음 (2021년 5월 말 기준 1,189개 은행 참여).

6) www.ft.com FirstFT: Top finance watchdog warns west over Russia sanctions. (조회일자: 2022.2.16)



망 제재로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2020년 기준 러시아 교역의 18.2%를 점유하고 있음. 러시아의 대중국 수출에서는 에너지가, 중국의 대러시아 수출에서는 기계 및 설비가 각각 최대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 러시아의 대중국 수입액 중 기계 및 설비의 비중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시행된 2014년 당시의 46.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0년 60.3%를 기록하였음. 이처럼 러시아는 중국과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여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서방의 공급 제한에 대응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수입의존도가 높은 공작기계, 의료기기, 제약, 조선 등의 부문에서 기존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러시아 정부는 곡물 및 원자재의 국내 소비물량 확보 차원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서방의 공급망 제재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최근 질소 비료에 대한 수출 쿼터제 실시(2021.12.1.~2022.5.31.), 곡물 수출 제한 조치(콩, 밀, 옥수수, 보리 등에 대한 수출 할당제 및 수출관세 인상), 고철⁷⁾ 수출 일시적 중단 및 수출관세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부존자원과 공급 영향

- (농산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대두, 옥수수, 보리, 호밀 등 곡물의 세계적인 수출국으로, 국제 곡물 시장의 가격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를 지키고 있음.
- 특히 밀의 경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세계 1위 및 5위의 밀 수출국으로 전 세계 밀 수출량의 25.4%를 점유하여, 분쟁이 격화될 경우 국제 밀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됨.⁸⁾
- (비료) 러시아는 질소비료의 원료인 암모니아의 세계 2위 수출국이며, 또 다른 비료의 원료인 탄산칼륨의 주요 수출국으로 국제 비료 시장의 가격 동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급망) 러시아는 자동차용 촉매 전환기, 메모리 생산에 사용되는 희귀 금속인 팔라듐의 세계 1위 수출국이며, 이외에도 러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은 니켈, 알루미늄, 구리 등의 국제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에너지) 러시아는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세계시장 공급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2020년 기준 러시아는 원유의 생산량(전 세계의 12.6%)과 수출량 모두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은 세계 2위(16.6%), 수출량은 세계 1위에 이르고 있음. 또한 석탄의 세계 3대 수출국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⁹⁾
- 특히, 유럽 국가들이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40%를 공급하고 있어 유럽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음.

7) 고철은 용광로에서 재활용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지 않아 최근 탄소중립 시대에 철강을 대신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음.

8) www.aljazeera.com (조회일자: 2022.2.17.)

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Ⅲ.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1. 러시아와 서방 간 대립의 한국에 대한 영향

한-러시아 및 한-우크라이나 교역 현황과 영향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상품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러시아와 서방 간의 대립이 우리나라의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에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21년 기준 러시아는 우리나라 상품수출의 1.55% 및 상품수입의 2.82%,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 상품수출의 0.09% 및 상품수입의 0.05%를 각각 차지하는 데 그쳤음.
- 수출 감소: 러시아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부품, 화장품 등의 수출이 감소할 수 있음. 2021년 자동차 수출에서 현대자동차는 38,161대, 기아자동차는 51,869대를 러시아에 수출했으며, 우리나라의 완성차 전체 수출 물량 중 대러시아 수출 비중은 4.5%를 기록하였음.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한국산 자동차의 러시아 시장 판매가 10% 감소하고, 전면전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29%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¹⁰⁾
- 수입 감소: 대러시아 수입 비중이 높은 석유제품,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우라늄, 백금, 고철 등의 광물 제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서방의 상호 제재로 이 원자재들의 수입이 제한되거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간의 교역 현황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러시아는 2021년 기준 한국의 10대 교역국으로, 교역액은 2021년 273억 달러 (수출 100억 달러, 수입 173억 달러)를 기록하여 1991년 수교 이후 최대치를 기록 (종전 최대치는 2014년의 258억 달러) - 지난해에 수출·수입액이 모두 상승하였는데, 수출액은 2020년의 69억 달러에서 2021년 100억 달러로 45% 상승하였으며, 수입액은 2020년의 106억 달러에서 2021년 173억 달러로 63% 상승하였음. - (수출) 2021년 기준 한국의 제12위 수출상대국(우리나라 상품수출액의 1.55% 점유) * 5대 수출품목 : 자동차, 자동차 부품, 레일 및 철구조물, 합성수지, 건설광산기계 - (수입) 2021년 기준 한국의 제9위 수입상대국(우리나라 상품수입액의 2.82% 점유) * 5대 수입품목 : 석유제품, 원유, 석탄, 천연가스, 금/은 및 백금
우크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역) 한-우크라이나 교역액은 2021년 기준 8.9억 달러 : 한국의 68번째 교역상대국 - (수출) 2021년 5.8억 달러이며,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철강판, 비누/치약 및 화장품, 합성수지, 자동차 부품 등 - (수입) 2021년 3.1억 달러이며, 주요 수입품은 정밀화학연료, 곡물, 철광, 기타 금속광물 등

10) www.ekoreanews.co.kr (조회일자: 2022.2.15.) 한국의 대러시아 자동차 및 부품 수출규모는 41억 5,100만 달러로 대러시아 전체 수출액의 42%를 점유하고 있음.



[표 2]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5대 수출품목과 수출비중(MTI 3단위, 2021년 기준)

순위	2009년		2014년		2021년	
	1	자동차	20.3%	자동차	26.4%	자동차
2	무선통신기기	8.7%	자동차 부품	13.7%	자동차 부품	15.1%
3	자동차 부품	7.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8.5%	레일 및 철구조물	4.9%
4	합성수지	7.0%	합성수지	4.1%	합성수지	4.8%
5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6.9%	영상기기	3.5%	건설광산기계	4.3%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3]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5대 수입품목과 수출비중(MTI 3단위, 2021년 기준)

순위	2009년		2014년		2021	
	1	원유	30.5%	석유제품	33.5%	석유제품
2	석유제품	13.3%	원유	27.1%	원유	24.6%
3	석탄	7.6%	석탄	10.4%	석탄	14.8%
4	합금철·선철 및 고철	7.4%	천연가스	7.9%	천연가스	9.9%
5	알루미늄	7.3%	합금철·선철 및 고철	4.0%	금/은 및 백금	3.4%

자료: 한국무역협회

에너지 및 광물, 곡물 수입에 대한 영향 가능성

- (에너지)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 자원 수입에서 러시아산의 비중이 최근 수년 간 상승하여, 향후 정세가 악화될 경우 관련 품목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 러시아는 2021년(금액기준) 우리나라 석유제품 수입액의 19.5%를 점유하여 수입상대국 1위를 기록하였음. 2021년 수입액은 2020년 대비 69.7%나 증가하였음.
- 러시아산 원유는 전체 원유 수입액의 6.4%를 점유하여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에 이어 수입상대국 4위를 기록하였으며, 러시아산 천연가스도 전체 천연가스 수입액의 6.7%를 점유하여 카타르, 호주, 미국, 오만, 말레이시아에 이어 수입상대국 6위를 기록하였음.
- 러시아산 석탄은 전체 석탄 수입액의 17.7%를 점유하여 호주에 이어 수입상대국 2위를 기록하였음. (무연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호주에 이어 40.8%, 유연탄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호주에 이어 16.3%)
- (광물) 서방의 제재와 러시아의 수출 제한으로 광물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산업의 생산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
- 러시아산 우라늄은 전체 우라늄 수입에서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많은 33.8%를 기록했으며, 합금철·선철 및 고철의 수입 비중도 일본 다음으로 많은 11.5%를 점유하고 있음.
- 금/은 및 백금의 수입 비중은 9.7%로 호주, 영국에 이어 수입상대국 3위를 기록하였음. 백금은 자동차 부품과 인쇄회로, 의료용 기기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품목 생산에 사용되고 있음.



[표 4]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 및 광물의 대러시아 수입 비중(2021년, 금액기준)

에너지 자원			광물		
품목	수입 순위	수입 비중	품목	수입 순위	수입 비중
석유제품	1위	19.5%	우라늄	2위	33.8%
원유	4위	6.4%	금은 및 백금	3위	9.7%
천연가스	6위	6.7%	합금철·선철 및 고철	2위	11.5%
석탄	2위(유연탄, 무연탄 각각 2위)	17.7% (무연탄 40.8%, 유연탄 16.3%)	-	-	-

자료: 한국무역협회

- (희유금속)¹¹⁾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의 시행과 이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등으로 수입 비중이 높은 원재료의 수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2019~20년 우리나라의 희유금속 원재료 수입액의 5%를 점유하여 수입상대국 7위를 기록하였음. 특히 팔라듐, 로듐, 크롬, 티탄, 게르마늄 등의 수입 비중이 높음.¹²⁾

[표 5]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주요 희유금속 원재료 수입 비중(2019~20년, 금액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수입 순위	수입 비중	수입 순위	수입 비중
팔라듐	1위	37%	1위	20%
로듐	4위	6%	3위	23%
크롬	4위	7%	4위	9%
티탄	5위	7%	5위	9%
게르마늄	3위	7%	3위	6%
마그네슘	3위	3%	3위	3%
카드뮴	4위	1%	4위	2%
리튬	5위	1%	3위	2%
니오븀	5위	1%	5위	1%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2020년, 2021년 각호

- 한편,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로부터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네온과 크립톤을 수입하고 있으며, 높은 수입의존도를 기록하고 있음.¹³⁾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네온 수입상대국 제2위로 비중은 2021년 23%(132.8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최대 수입국으로 52.3%의 점유율(193.8만 달러)을 기록한 바 있음. 또한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의 크립톤 수입상대국 1위의 비중을 기록하고 있음.

11) 희유금속(rare metal)은 철·동·알루미늄·연·아연 등과 같이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보통금속(common metal)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에 존재량이 적거나 생산 및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요가 있고 향후 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금속원소임. 또한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량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특정국에서 전량을 수입해 공급에 위험성이 있는 금속원소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37종의 광물을 희유금속으로 분류하여 교역통계를 발표하고 있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2021년. pp. 4~5.

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37개 희유금속을 대상으로 교역 현황을 파악함. 2020년 기준 한국의 희유금속 수입에서 러시아는 중국(20%), 일본(11%), 미국(8%), 남아프리카공화국(6%), 칠레(6%), 호주(5%)에 이어 7위를 기록하였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2021년. p. 23.

13)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네온 가스 공급의 70%를 점유하고 있음. zdnet.co.kr (조회일자: 2022.2.16.)



[표 6] 우리나라의 대우크라이나 광물 수입 비중(2020~21년, 금액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수입 순위	수입 비중	수입 순위	수입 비중
네온	1위	52.3%	2위	23%
크립톤	1위	31.1%	1위	30.7%

자료: 한국무역협회

- (곡물) 우리나라의 내수 사료용 밀·옥수수·대두의 연간 수입량은 1,722만 톤이며, 이 중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¹⁴⁾으로 긴장 상황 지속 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러시아에 현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장 상황이 지속될 경우 반도체 수급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삼성전자는 TV와 모니터, LG전자는 TV, 모니터, 세탁기, 냉장고 등을 각각 러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여 러시아와 구소련 국가들, 유럽 등지에 판매하고 있음.
 - 군사적 충돌의 발생으로 반도체 수출 제한 등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강화될 경우 현지 한국 기업들의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며, 러시아 국내 소비 위축으로 현지 판매가 위축되어 이종으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우크라이나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이 12개 기업들이 현지에 판매법인, 지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아울러 삼성전자는 2009년부터 키예프에서 인공지능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 발생 시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¹⁵⁾
- 포스코대우는 우크라이나의 흑해 연안 미콜라이프 항에 소재한 곡물 수출 터미널의 운영권을 확보하고 곡물을 한국에 수입해온 바 있으나, 향후 군사적 충돌 발생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됨.¹⁶⁾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간접적 영향

- (곡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 곡물인 밀,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의 국제시장 공급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으며, 국내 수입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곡물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 수입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아울러 러시아산과 우크라이나산 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이집트(수입의 70% 비중), 터키(수입의 74% 비중), 방글라데시 등 국가의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¹⁷⁾
- (광물 및 원자재) 광물 공급 제한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국내 업계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음.

14)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2022년 2월 11일.

15) 삼성전자 인공지능연구소는 현지 대학과 연계하여 보안, AI,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의 부문에서 산학협력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16) 포스코대우는 2019년 2월 당시 건설이 진행 중이던 연간 처리규모 250만 톤의 곡물 터미널 지분 75%를 우크라이나의 오렉심 그룹으로부터 인수하였으며 2020년 1월 터미널이 준공됨. 이후 2020년 10월에는 이 곡물 터미널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된 사료용 밀을 국내에 반입하였음.

17) www.aljazeera.com (조회일자: 2022.2.17.)



-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철강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이는 국내 철강업계의 수익성 하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음.¹⁸⁾ 또한 알루미늄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주석, 구리, 아연 등) 시장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음.
- (에너지) 에너지 국제가격의 대폭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러시아 국영 에너지기업 Gazprom은 2022년 1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관과 '야말-유럽 가스관'을 통한 유럽으로의 가스 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급격히 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유럽 국가들이 재고물량을 우선 사용하여, 재고 감소로 천연가스 수급 차질과 가격 상승이 예상됨.¹⁹⁾
-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국제유가(두바이유)는 2021년 12월 배럴당 73.2달러에서 2022년 2월 첫째 주에 88.7달러, 2월 14~18일에는 92.6달러로 상승하였음.²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5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²¹⁾
- 최근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 제한 시 아시아에 공급되는 천연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정 초래와 그에 따른 직접적인 악영향 우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시행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경제도 이에 따른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 관련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환율 상승, 주가 하락 등과 함께 전 세계 금융시장의 환율, 주가, 금리 등의 변동성이 고조되는 등 우리 경제의 대외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2. 우리의 대응 방안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필요

-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러시아 생산공장의 생산 및 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기업들의 생산에 필요한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곡물, 에너지, 광물 등의 전반적인 공급망 재점검 필요

- 군사적 충돌이 가시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제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곡물, 에너지, 광물 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수입 및 수출 노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음.

18) 한국은 주로 브라질,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직접적인 수입 물량 부족 등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됨.

19) 러시아는 2022년 1월 상반기에 대유럽 천연가스 공급량을 44%를 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우크라이나 긴장 고조와 국내 에너지 수급 영향」, 2022.2.15. pp. 2~3; 유럽 국가들 가운데 독일의 러시아산 가스 수입비중은 49%이며, 북마케도니아, 핀란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 www.statista.com Which European Countries Depend on Russian Gas? (조회일자: 2022.2.3.)

20) 한국석유공사. 「주간국내유가동향」, 2022년 2월 3주.

21) 에너지경제연구원. p. 5.



- 원자재 수급 동향과 가격 변동 추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수입선 다변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곡물의 국제가격 급등에 대비한 대체 공급망의 확보가 요구됨.
- 세계 밀 수출량의 25.4%를 점유하고 한국의 사료용 밀·대두·옥수수 수입에서도 1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곡물 국제가격 급등과 러시아의 수출제한 확대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비하여 곡물이 대체 공급망 확보가 필요함.
- 원유, 석탄 등 주요 에너지자원과 철강 등 주요 원자재 또한 국제가격 급등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체 공급망의 확보가 필요함.
- 특히 러시아산의 비중이 높은 석탄, 원유 및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필요함.
- 유럽의 천연가스 수급 차질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LNG 공급망의 구축이 필요함.
- 최근 미국은 러시아가 EU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는 상황에 대비해 한국, 일본, 인도 등에 천연가스 가계약 물량을 일시적으로 유럽으로 공급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천연가스 수급 차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전쟁 발발 시 유럽 시장에서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LNG 현물이 유럽으로 집중되어 아시아 LNG 시장의 현물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음.²²⁾

22)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우크라이나 긴장고조와 국내에너지수급영향」(2022.2.15.). p. 4.



< 참 고 문 헌 >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유금속 원재료 교역 분석』 2020년, 2021년
- 한국무역협회. 무역뉴스. 2022년 2월 11일.
- 한국석유공사. 「주간국내유가동향」. 2022년 2월 3주.
-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서방의 러시아 SWIFT 제재 움직임 동향 보고」 (2022.2.3.)
- 한국수출입은행 모스크바사무소, 「러시아 독자 지급결제시스템(SPFS) 현황」 (2022.2.7.)
- 에너지경제연구원, 「러-우크라이나 긴장고조와 국내에너지수급영향」. 2022.2.15.
- <https://www.gov.uk> 2022.2.10.
- <https://www.whitehouse.gov> 2022.2.18.
- <https://www.ft.com> FirstFT: Top finance watchdog warns west over Russia sanctions. 2022.2.16
-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21.
- <http://www.ekoreanews.co.kr> 2022.2.15.
- <https://www.aljazeera.com> 2022.2.17.
- <https://www.statista.com> Which European Countries Depend on Russian Gas? 2022.2.3.
- <https://zdnet.co.kr> 2022.2.16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